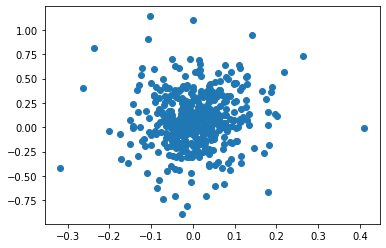
1. Kospi의 경우

아래 표에서 log는 변동률을, lag\_11은 미래 11개월 변동률을 의미한다.

테이블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1달이 미래 11개월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산점도



상관관계는 없어보인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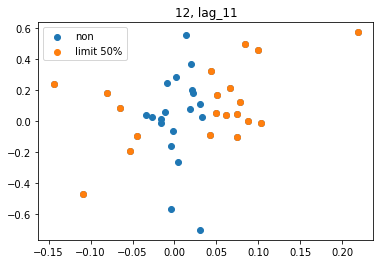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영수증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1월의 경우, 변동성 수준을 조절하더라도 상관계수가 유의하다(a=0.05)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의 경우, 변동성 수준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미래 11개월 지수 향방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변동성 상위 50%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상관관계가 0.49 정도로 유의하였다. 다만 10%p 단위로 조절할 때, 12월과 미래 11개월 간 상관성이 유의하다고 나타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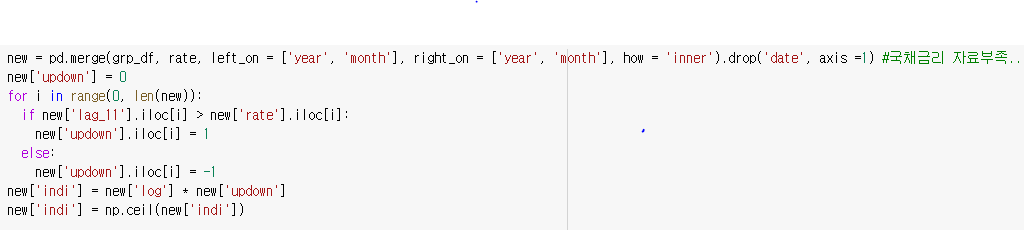
노란 점은 12월과 미래 11기간 간 산점도 중 변동성 상위 50%만을 가리킴.

t.test

국고채 1년 데이터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테이블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미래 11개월 지수 변동이 1년(11개월) 국채 금리보다 높다면 updown은 +1이고 아니라면 -1이다.

과거 1개월의 변동률과 updown의 부호가 같다면 indi는 1이고 그렇지 않다면 0이다.

따라서 indi의 평균이 0.5와 같다면 과거 1개월은 미래 11개월 지수 향방 예측에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p.value>0.05이므로 과거 1개월이 미래 11개월 지수 향방 예측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유사하게,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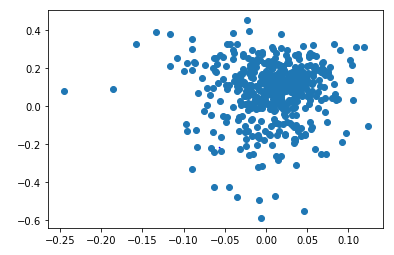
모두 p.value > 0.05이므로 어떤 달도 미래 11개월 지수 예측 향방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 S&P 500

테이블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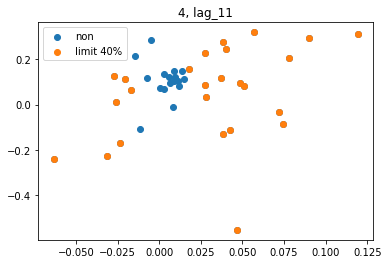
1달이 미래 11개월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산점도



텍스트, 영수증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4월의 경우, 변동성을 상위 40%로 제한하는 경우 유일하게 과거 4월의 변동성과 미래 11개월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유의하였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매 과거 1개월은 향후 11개월의 S&P 지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각 달로 분리해도 결과는 같다.

1. 결론

Kospi와 S&P500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12월, 4월)의 상관관계의 확인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다.

미래 11개월의 지수 향방을 상승과 하락으로 범주화한 경우에도 과거 1개월의 데이터만으로는 그를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신은 틀린 것 같다.

다만 S&P의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아닌 한국 금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lag11과 국채 금리를 단순 비교하였다는 점, 변동률이 국채금리와 유사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변동률 제한시 데이터 수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